

# “배달료 안 받는 음식점 찾습니다”

### 짜장면·치킨 이어 동네 음식점도 유료화...소비자 불만 폭주 설문 65% “차라리 안 먹겠다”...업계, 인건비 부담에 ‘딜레마’

자취를 하는 탓에 저녁식사를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다는 직장인 정모(28·광주 서동구 지산동)씨는 요즘 스마트폰 배달주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공짜 배달’ 업소를 눈여겨 찾고 있다. 최근 치킨부터 피자, 짜장면까지 1000원부터 3000원 상당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업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1만~2만원짜리 음식을 시키면서 2000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며 “이제는 맛과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보다 배달료가 없는 식당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짜장면과 치킨, 피자 등 광주지역 외식업체가 잇달아 ‘배달료’를 따로 받기 시작했다. 인건비 인상 여파로 배달원 고용에 대한 부담

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용 부담에 ‘공짜 배달’ 업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유명 배달앱이 ‘배달비 유료화’에 나서며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동네 식당까지 배달비를 받는 업소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공짜 배달’을 찾고 있어 업계와 소비자간 간극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광주지역 외식업체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주문 앱에 등록된 지역 음식점 중 10% 상당이 별도의 배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달비 유료화에 나선 교촌치킨에 이어 BHC와 BBQ 등 치킨업체도 일부 가맹점들이 별도의 배달료를 받고 있다. 또 광주 서광산구 송정동의 한 중국음식점도 기본

배달비 1000원과 지역별 2000원, 3000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으며, 주변 쌀국수 전문점 역시 2000원의 배달비용을 받고 있는 등 골목상권의 동네 음식점들도 배달비 유료화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음식 주문앱 배달의 민족도 지난 26일부터 배달비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각 업소가 미리 지정해 놓은 배달료가 합산돼 결제되는 방식으로, 외식업계의 배달비용 책정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외식업계가 별도의 배달비를 받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명의 배달원을 고용할 경우 배달 1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배달업체를 이용해도 건당 2000~3000원의 비용이 발생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장조사기업 ‘트렌드모니터’가 배달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1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는 “어떤 이유든 배달료는 지불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응답했고, “배달료를 따로 지급하면서까지 배달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려 65.0%에 달했다.

이처럼 배달료 추가지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세지면서 지역 외식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배달료를 책정하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중국집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기본 배달비 1000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매출이 떨어져 결국 배달비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며 “배달비를 받으면 매출은 떨어지고, 안 받거나 인건비는 부담스러워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2.03 (-8.89)	↓ 금리(국고채 3년) 2.12 (-0.03)
↓ 코스닥 826.69 (-4.71)	↑ 환율(USD) 1117.60 (+2.80)



### 농협전남본부 ‘농촌 찾아가는 의료버스’

#### 나주 60세이상 고령 대상 물리치료·돋보기 안경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7일 나주 마한농협(조합장 박찬기)을 찾아가 지역 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복버스 농업인 의료지원에 참여한 동산대학교 한방병원은 고령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척추·관절 질환 건강상담과 침, 뜸, 부황, 물리치료 등 한방치료를 지원했다.

또 장수사진 지원에 참여한 ‘kunst 스튜디오’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200여명의 촬영했다. 또 다비치안경 광주광천

터미널신세계점(대표 박현준)은 200여명의 농업인에게 시력검사와 돋보기안경을 지원했다.

농협 행복버스 사업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의료지원, 장수사진, 돋보기안경, 문화·예술공연,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농촌지역 농업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나주를 시작으로 돋보기 안경사업도 확대 지원해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너의 아침을 응원해”

#### 기아차, 모닝죽 이벤트

기아차가 모닝죽을 제공하는 ‘너의 새로운 아침을 응원해’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기아차의 경차 ‘모닝’과 ‘모닝죽’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간식 연구 및 판매 브랜드인 인데이크와 제휴를 맺고 진행된다.

모닝죽으로 아침 응원을 받고 싶은 누구나 사연을 응모할 수 있고 1등 10개 팀을 선정, 모닝죽 300개를 전달한다.

2등 50개 팀에게는 모닝죽 30개를 제공한다.

죽 배달은 기아차 모닝을 이용한다. 사연 접수는 다음달 18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로 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초등생 진로 교육

금호타이어(대표 김중호)는 최근 서울 성북구 송곡초교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나를 찾아줘’라는 주제로 예술적 소질을 표현하는 직업·진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상·하반기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제공〉

## 기아차·삼성전자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우수’

#### 2017 지수평가...세방전지 등 15개사 ‘미흡’

기아차와 삼성전자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 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

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제량화한 지표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한 뒤 최우수·우수·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위원회는 공표대상 181개 기업의 동반

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28개사, ‘우수’ 62개사, ‘양호’ 61개사, ‘보통’ 15개사 및 ‘미흡’ 15개사로 나타났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중에는 광주·전남에 사업장을 둔 기아차·삼성전자·포스코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7년), 기아차(5년) 등은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오비맥주·세방전지 등 15개사는 공정거

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대상 기업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많고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으로, 동반성장 평가참여 기업 대부분은 지수 등급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청년, 中企 5년 근속시 3천만원 목돈마련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창업지원사업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와 ‘창업사업연계자금’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가 가입 후 5년 동안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청년재직자는 3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중진공 광주본부는 창업사업연계자

금 신청기업도 모집한다. 창업사업연계 자금은 정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한 전용자금이다.

창업사업연계자금은 ▲창업투자(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중기부 창업성장기술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정부 및 지자체, 대학BI입주 및 졸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내일채움공제 접수는 중진공 광주본부와 기업은행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62-600-3010. /박기용 기자 pboxer@



#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숨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시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	--	---

www.aroma-life.co.kr

# 1588-2219